

# '살고 싶은 도시' 서울의 프로파일분석

## Outline

- A. 살고 싶은 도시란?
- B. 살고 싶은 도시의 지표
- C. 연구방법
- D. 연구결과
- E. 정책적 제언

발표자 : 권재기

*20 October 2020*

### 1. 개념

- 사람과 도시가 주체와 객체로서 분리되기보다 하나로 된 도시(박재길, 2006).
- 살고 있는 주민들도 앞으로 계속 머물러 살고 싶어 하고,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의미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주민
- 도시 성장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반성과 함께 도시를 살아가는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심리내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 2. 관련 연구

- **실태 및 사례조사연구**(이민선·정진주·최효승, 2007; 대한주택공사, 2006),
-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비전·발전 연구**(건설교통부, 200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김현수 외, 2006; 대한국토공사, 2006; 박용남, 2006; 박재길, 2006a, 2006b, 2007; 이재하, 2007, 2014; 이창호·정보리, 2010).
- **서울시 행복/삶의 질 지표 및 도시디자인 전략연구**(변미리, 2015; 변미리 외, 2016; 변미리 외, 2017; 백선희 외, 2008; 김귀곤 외, 1990; 김진욱, 2000; 변미리 외, 2018; 고건, 1998)
- **살고 싶은 도시의 조건 및 영향연구**(김현민 외, 2013; 모성은, 2007)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시민 참여 연구**(진영환 외, 2007; 이명규, 2006,; 진미윤 외, 2007; 최병두, 2006)
- **도시디자인 정책 및 평가 연구**(건설교통부, 1999, 2009; 송은하, 2012; 이상민, 2008; 조명래 외, 2011)

## A. 살고 싶은 도시란?

### 3. 선행연구 제한점에 따른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실제적인 경험적 연구가 다소 부족.
  - 본 연구에서는 서울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민 총 42,991명을 대상으로 살고 싶은 서울의 다양한 특성을 양적분석
- 2) 살고 싶은 도시의 지표 연구는 정량적 지표가 많은 부분 차지함. 그러나 최근에는 그 도시를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초점이 바뀌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도시의 주체인 시민의 삶의 질, 행복과 같은 심리 내적 특성을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살고 싶은 서울의 지표를 선정.

3) 전통적인 집단 비교연구는 다양한 개인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성별이 같아도 경제여건, 개인의 생활여건, 환경적 여건 등이 다름. 도시유형을 분류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집단의 수를 결정하는데 군집분석을 사용하여 방법적 한계가 있음

〈표 3〉 도시의 유형 분류 연구들

연구자(연도)	대상	분석방법	지표	지표수	척도	집단수(집단명)
조현숙(2002)	서울시의 25개 구	군집분석	부존환경, 정부노력, 환경부하, 환경의 질	4	표준화 점수	별도 없음
이우성 외 (2008)	경상남·북 45개 행정도시	군집분석 (K-mean)	삶의 질 환경 및 지속가능성 지표	19	표준화 점수	4개(제1유형~제4유형)
이승철(2011)	대구·경북 31개 시군	군집분석 (K-mean)	환경(5), 경제(5), 사회(4), 삶의 질(5)	19	표준화 점수	4개(광역기술형도시, 산업경제형도시, 생활·복지교육형도시, 환경·생태형도시)

출처 : 연구자 작성

➤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형 기반의 잠재 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사용하여 집단을 분류

### 4. 연구목적

- 1) 선행연구고찰을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지표를 체계화하여 선정. 선정된 지표에 따른 24개 행정구역의 특성을 살펴봄
- 2) 살고 싶은 서울의 지표를 근거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여 '살고 싶은 서울의 프로파일'을 탐색, 집단을 분류.
- 3) 살고 싶은 서울 프로파일에서 나타난 집단별 서울 거주 특성의 차이를 분석
- 4) 살고 싶은 서울 프로파일의 집단별 생활여건·지역사회 신뢰·나눔 행동, 약자에 대한 태도·사회적 불평등의 인식의 차이를 분석.

## B. 살고 싶은 도시의 지표

- 객관적 지표는 측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도시 구성원이 진정으로 거주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고, 거주민적 관점보다는 세계중상층의 관점이 평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비판(송은하, 2012; Nelson, 2011).
- 본 연구는 도시를 살고 있는 시민이 느끼고 경험한 정도를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살고 싶은 서울의 지표를 선정.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종합 정리하여 살고 싶은 도시의 평가 영역과 지표를 체계화하였음.

〈표 1〉 살고 싶은 도시의 평가 영역

구분	영역내용	연구자(연도)	
삶의 질	삶의 질 지수	물리적 안녕, 직업 안정성, 건강, 가족생활, 공동체 생활, 기후, 정치적 안정성, 정치적 자유, 성 평등성	영국 이코노미스트 트리 EIU(2005)
	Gross National Happiness	생활수준, 건강, 교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회복력,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력, 시간 사용과 균형, 거버넌스, 활력있는 지역사회, 심리적 행복	Donnelly(2004)
	홍콩 삶의 지수	경제, 사회와 문화, 환경	Chan, et al.,(2005)
	경기도 삶의 질	경제적 삶, 안전한 삶, 편리한 삶, 쾌적한 삶, 사회문화적 삶	경기개발연구원(2001)
	삶의 질	물리적 삶의 질(경제성, 편리성, 입지와 관련된 요소) 비물리적 삶의 질(교육·문화적 삶, 건강 및 안전한 삶)	김현식(2001)
행복 지수	서울시민 행복지수	경제, 문화교육, 복지, 사회안전, 생태환경, 생활환경, 시민시정, 공동체적 삶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6)
	호주 웰빙지수	경제, 인구, 가족과 공동체, 건강, 교육, 직업, 주택, 범죄, 문화와 레저	Trewin(2001)
	영국 행복지수	평균수명, 생태학적 발자취, 삶의 만족도	Marks et al.,(2006)
도시의 지속가능성평가	안전하고 건강한 경제, 강한 사회, 시민과 공동체 참여, 기후 변화 대응 주민참여(주민요구 참여, 지자체 참여유도) 도시관리(경쟁력 제고, 도시안전 확보, 주민복지 제고) 정보화(정보화 비전과 의지,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서비스 제공) 녹색교통(자전거 이용, 보행환경, 대중교통, 교통안전) 지역문화(지역문화 정책, 문화시설 확충 이용, 문화프로그램 육성)	대한국토공사(2006)	

## B. 살고 싶은 도시의 지표

### ● 평가영역별 세부 지표를 이원분류표로 정리 <표 2>

<표 2>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평가 지표

	문화	녹지 환경	경제	녹색 교통	교육	안전 / 치안	건강 / 행복	공동체 / 다문화	복지 / 의료	시민참여 / 거버넌스	주거 환경	정보화
①			●				●	●				
②	●	●	●		●		●	●		●		
③	●	●	●									
④	●	●	●	●		●						
⑤	●		●	●	●	●	●					
⑥	●	●	●		●	●		●	●	●		
⑦	●		●		●	●	●	●			●	
⑧							●					
⑨	●	●		●		●			●	●		●
⑩	●	●		●						●		●
⑪	●	●	●	●				●				
⑫	●	●	●		●	●			●		●	
⑬	●	●					●		●	●		
⑭	●	●	●					●		●		
⑮	●	●		●	●	●			●		●	

참고 : ① EIU(2005), ② Donnelly(2004), ③ Chan, et al.(2005), ④ 경기개발연구원(2001), ⑤ 김현식(2001), ⑥ 서울시  
정개발연구원(2006), ⑦ Trewin(2001), ⑧ Marks et al(2006), ⑨ 대한국토공사(2006), ⑩ 이승환(2007), ⑪ 이재  
하(2014), ⑫ 양병이(1997), ⑬ Douglass(2008), ⑭ 김현민 외(2013). ⑮ 건설교통부(2006)

출처 : 연구자 작성

## C.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활용 데이터는 서울서베이 2018년 자료, 연구대상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에 거주 중인 15세 이상 가구원 **총 42,991명**(남자 52.8%, 여자 47.2%).

<표 4>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분포(n=42,991)

구분	n	%	구분	n	%		
행정구역	종로구	1193	2.8	연령	10대	1413	3.3
	중구	923	2.1		20대	4259	9.9
	송산구	1339	3.1		30대	7847	18.3
	성동구	1650	3.8		40대	7816	18.2
	광진구	1590	3.7		50대	8092	18.8
	동대문구	1693	3.9		60대	7722	18.0
	중랑구	1672	3.9		70대	4365	10.2
	성북구	1846	4.3		80대 이상	1477	3.4
	강북구	1719	4	성별	남성	22696	52.8
	도봉구	1500	3.5		여성	20295	47.2
	노원구	1985	4.6	혼인상태	기혼	28759	66.9
	은평구	1999	4.6		미혼	9705	22.6
	서대문구	1490	3.5	이혼,사별	4527	10.5	
	마포구	1851	4.3	최종학력	무학	323	.8
	양천구	1880	4.4		초졸	1650	3.8
	강서구	2071	4.8		중졸	3357	7.8
	구로구	1804	4.2		고졸	15471	36.0
	금천구	1290	3		대학졸(4년제 미만)	8118	18.9
	영등포구	1680	3.9		대학졸(4년제 이상)	13583	31.6
	동작구	1667	3.9	석박사졸	489	1.1	
	관악구	2275	5.3	월소득	150만원 미만	2298	5.3
	서초구	1736	4		150~300만원 미만	11640	27.1
	강남구	1974	4.6		300~500만원 미만	10208	23.7
	송파구	2338	5.4		500~800만원 미만	1774	4.1
	강동구	1826	4.2		800만원 이상	188	.4
					해당없음	16888	39.3
직업	관리직	834	1.9	주거 접유 형태	자가집	25558	59.4
	전문직	1647	3.8		전세	13347	31
	사무직	9204	21.4		월세	4043	9.4
	서비스	5092	11.8		사글세/무상	43	0.1
	판매직	5099	11.9	출생지역	서울	17823	41.5
	농림어업	39	0.1		경기/인천	9404	21.9
	기능직	1966	4.5		비수도권	15764	36.7
	기계조립	845	2	주택형태	단독주택	14014	32.6
	노무직	1375	3.2		아파트	19058	44.3
	학생	4032	9.4		다세대주택	5055	11.8
	주부	9046	21		연립주택/빌라/기타	4864	11.3
	무직/기타	3822	8.9				
	합계					42991	100.0

## 2. 살고 싶은 서울프로파일 지표

### ● 총 13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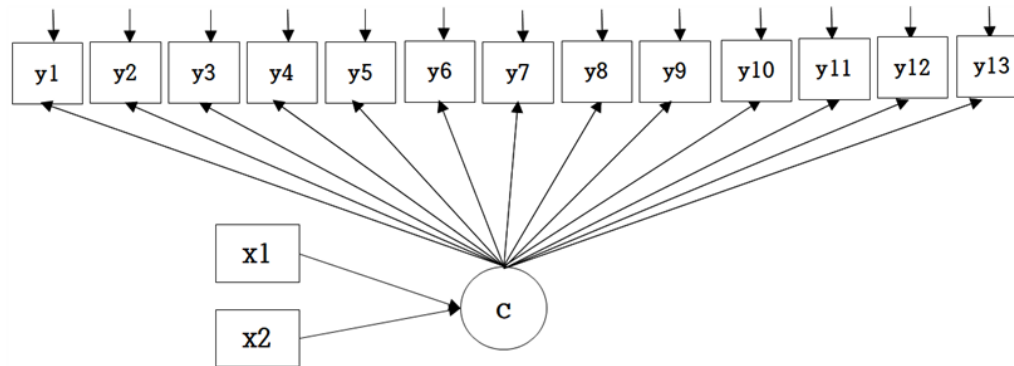
- 경제환경, 건강/행복, 안전/치안, 주거환경, 녹지환경, 녹색교통, 복지/의료, 교육환경, 문화환경, 공동체(다문화), 시민참여, 정보화, 서울거주욕구

〈표 5〉 '살고 싶은 서울' 프로파일 지표의 기술통계치

구분	지표	지표내용	문항 수	응답 척도	원점수				변환한 표준점수			
					M	Std	Min	Max	Min	Max	왜도	첨도
개인 생활 만족도	경제 환경	경제환경만족도, 경제소득수준 인식도, 총 가구소득, 가구 부채 여부	4	10점	4.90	1.68	.50	9.50	-2.62	2.74	.42	.14
	건강/행복	자신의 건강상태, 가정생활·주위 친구 관계·사회생활에 대한 행복도	4	10점	6.37	1.34	0	10	-4.74	3.49	-.17	-.05
환경적 만족도	안전/치안	우리 동네의 안전 정도, 살고 있는 지역의 범죄·폭력에 대한 심각성	2	4점	3.53	0.80	1	5	-3.18	2.24	.10	.07
	주거 환경	자가집 유무, 소음·쓰레기방치의 심각성, 주거환경의 만족도	4	5점	2.82	0.54	1.00	4.25	-3.36	2.64	-.10	.00
	녹지 환경	거주 지역의 녹지에 대한 만족도	1	5점	3.36	0.81	1	5	-2.89	2.02	-.41	.13
	녹색 교통	통근/통학환경, 서울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자전거 이용, 주거지역·서울 도심 보행환경, 야간보행 등에 대한 만족도	8	5점	3.48	0.48	1	5	-5.11	3.15	-.18	.31
	복지 의료	복지, 질병, 의료시설 등의 만족도	1	5	3.35	.74	1	5	-2.61	1.89	-.27	-.18
	교육 환경	교육환경 만족도, 사교육비 만족도, 사교육의 질, 사교육 접근성	4	5점	3.21	0.82	1	5	-2.70	2.70	-.10	.00
문화·공동체 의식	문화 환경	서울시의 전반적인 문화환경 지금 살고 있는 자치구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 문화활동횟수	3	5점	3.47	0.53	1.00	5	-3.47	2.47	.10	.32
	공동체	외국인을 나의 친구로,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등	6	5점	3.32	.55	1	5	-4.23	3.07	-.25	.29
거버넌스	시민 참여	민원제안 및 제기,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 마을만들기, 공유도시 등 서울시 정책관련 사업, 정책제안, 집회/시위 참가, 투표 등과 같은 6가지 정치참여	6	2점	.99	.68	0	6	-1.44	7.27	1.41	5.55
	정보화	서울페이 인지도부, 스마트시티 인지도부	2	2점	.96	.58	0.00	2	-1.66	1.81	.00	.00
	서울거주 욕구	향후 10년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정도	1	5점	3.78	.93	1	5	-2.97	1.31	-.42	-.36

## 3. 분석방법

- '살고 싶은 서울'의 13가지 지표별 24개 행정구역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 '살고 싶은 서울'의 프로파일에 따른 집단을 도출하기 위하여 잠재프로파일분석(LPA; Muthén, 2001)을 실시. 잠재프로파일분석은 혼합모형이고, 집단-기반 준모수적 접근법(group-based semi-parametric approach; Muthén & Muthén, 2000)으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모집단을 다룰 때 유용한 분석방법.



〈그림 1〉 잠재프로파일분석모형(Latent profile analysis; LPA)

- '살고 싶은 서울'의 프로파일에서 도출된 집단별 서울 거주 특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 '살고 싶은 서울'의 프로파일에서 도출된 집단별 생활여건·지역사회 신뢰도·나눔활동·약자에 대한 태도·사회적 불평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 1. 살고 싶은 서울의 지표에 따른 24개 행정구역의 특성

- 살고 싶은 서울의 지표별 24개 행정구역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남.

〈표 6〉 서울의 5개권역별 살고 싶은 서울프로파일 지표의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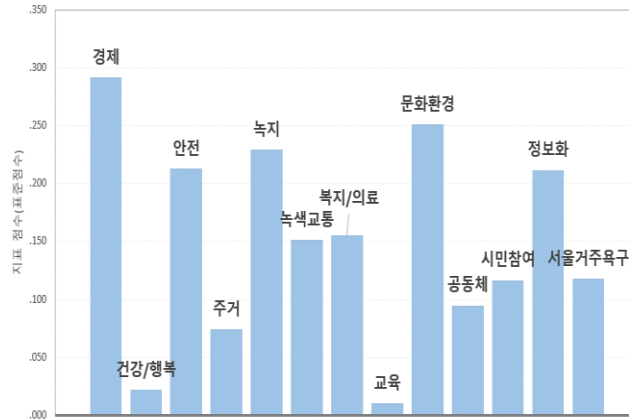
지표 5개권역	개인생활 만족도		환경적 만족도						문화·공동체		시민 참여	정보화	서울 거주 욕구
	경제 환경	건강 행복	안전 치안	주거 환경	녹지 환경	녹색 교통	복지 의료	교육 환경	문화 환경	공동체			
도심권	용산구		중구										
동북권											도봉구		
서북권													
서남권			강서구 양천구						양천구 금천구				금천구
동남권	서초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표 7〉 서울의 5개권역별 살고 싶은 서울프로파일 13가지 지표에 대한 만족 또는 불만족한 지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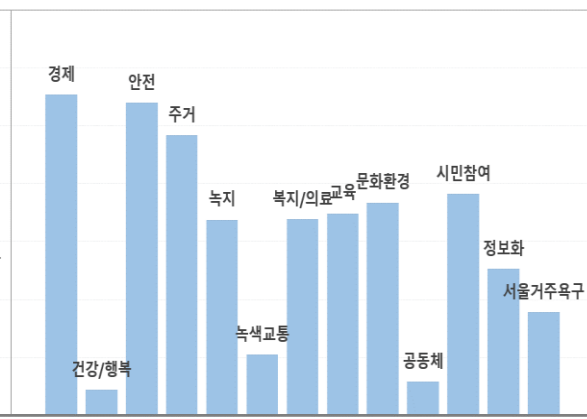
구분 5개권역	13가지 지표 모두 만족한(+) 지역구	13가지 지표 중 9개 이상 만족한(+) 지역구	13가지 지표 모두 불만족한(-) 지역구	13가지 지표 중 9개 이상 불만족한(-) 지역구
도심권		용산구		종로구, 중구
동북권		광진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서북권	마포구			
서남권				
동남권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 D.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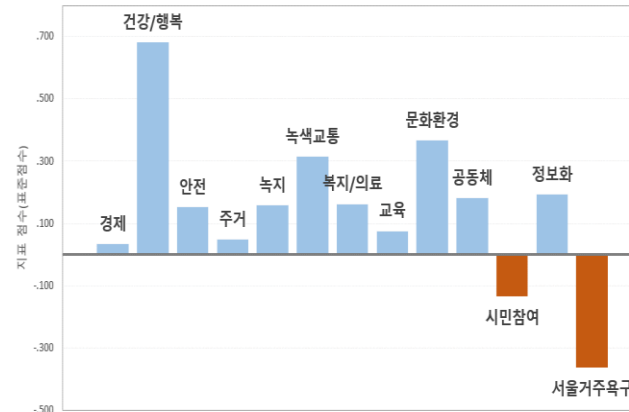
마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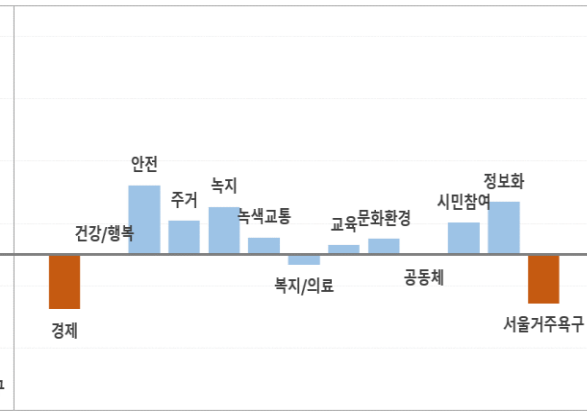
송파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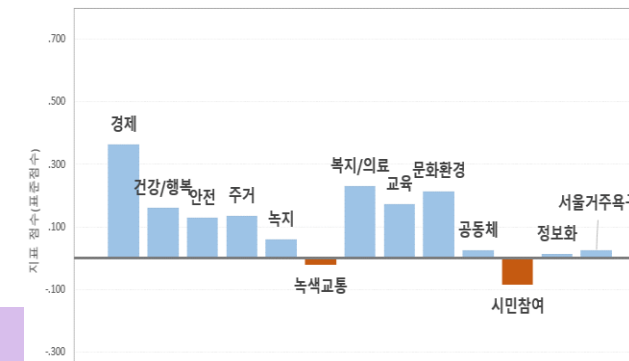
용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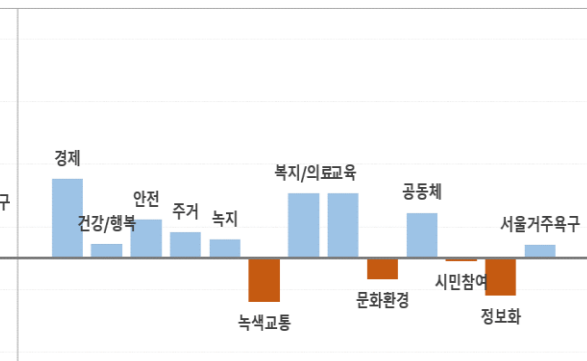
광진구



서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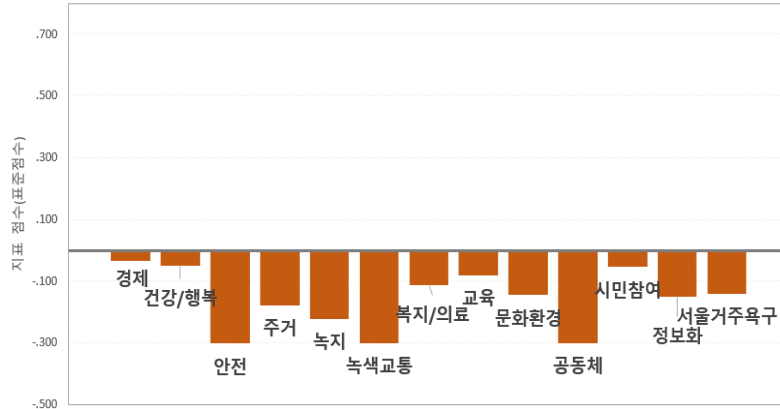


강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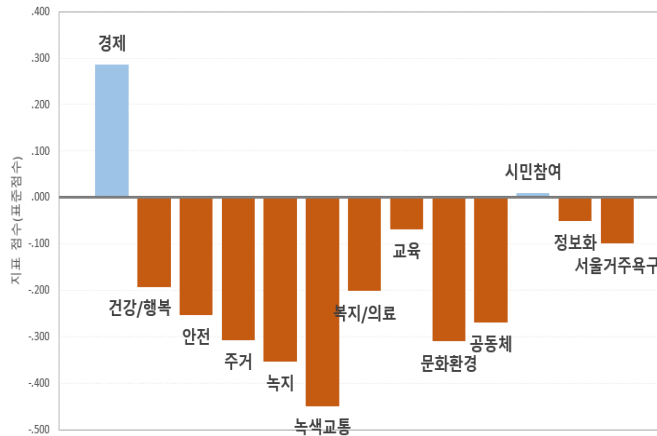


# D.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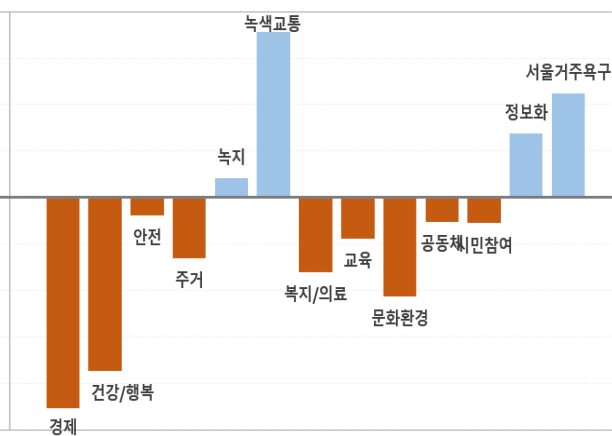
동대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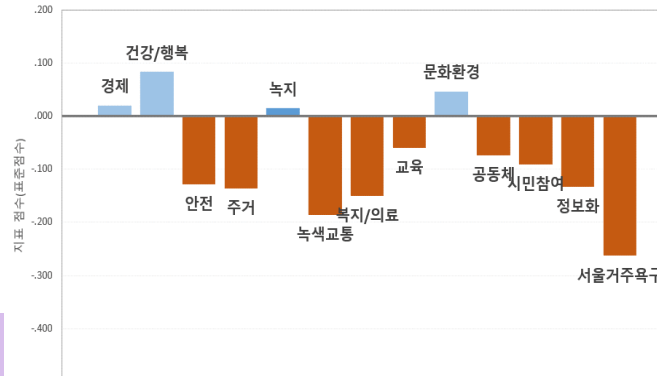
종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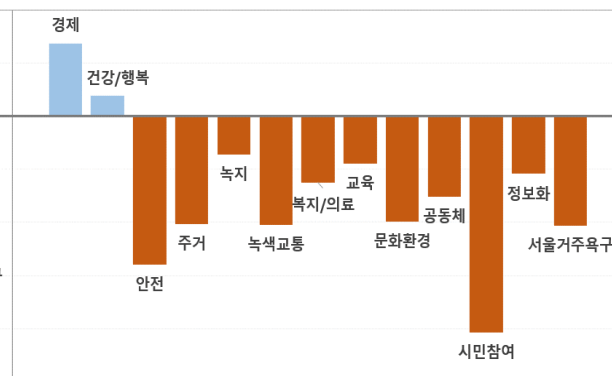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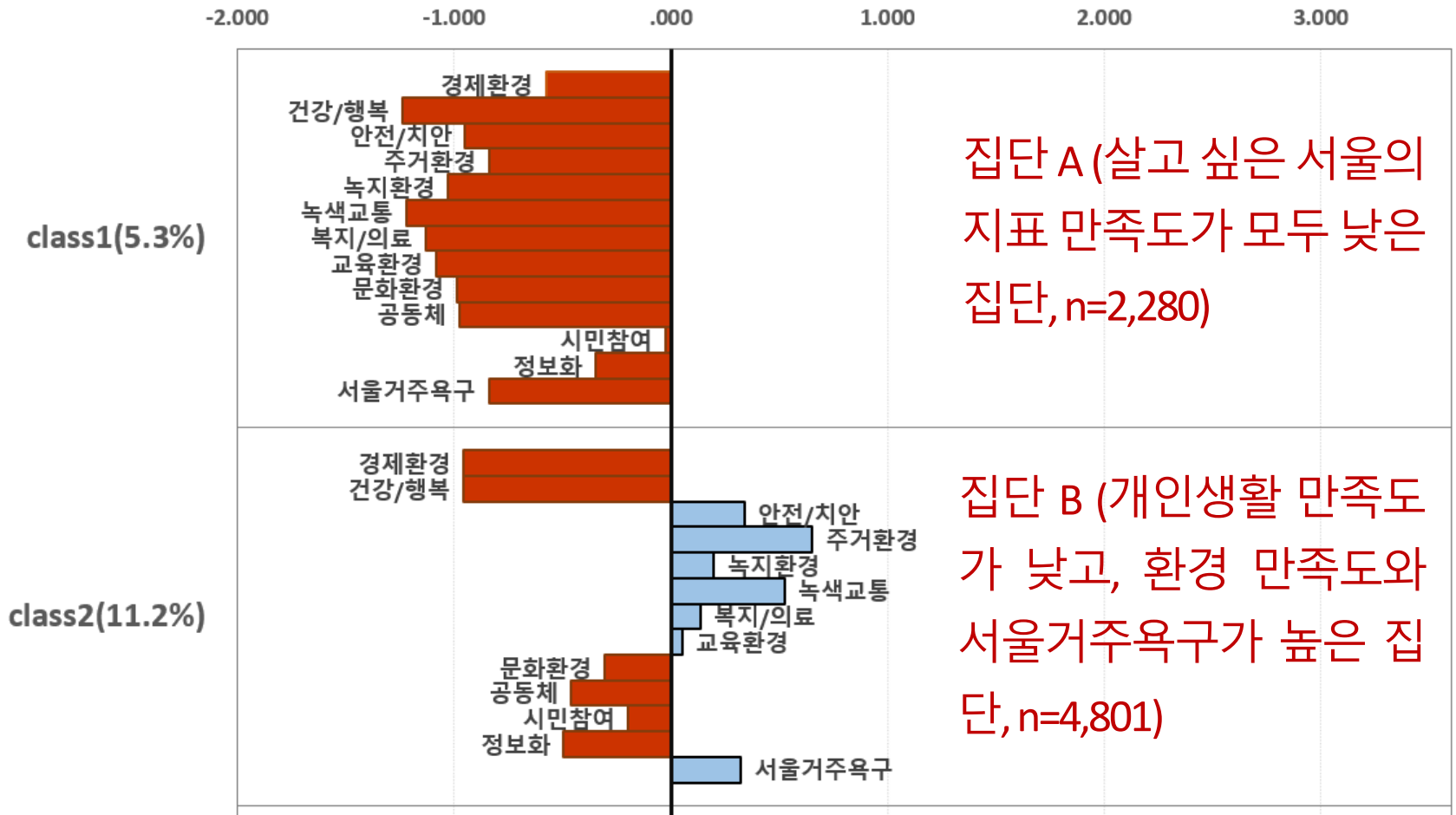
성동구



성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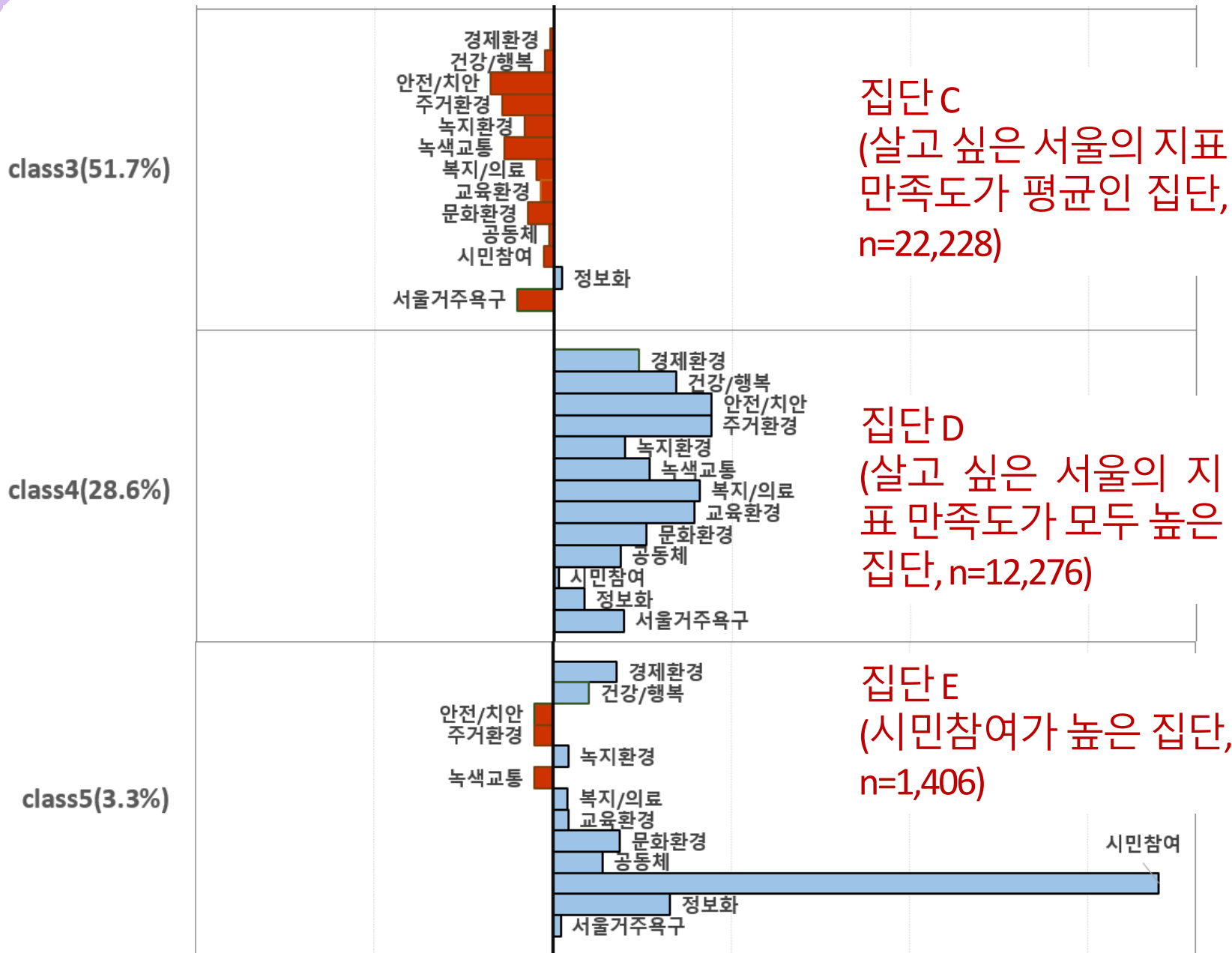
## 2. 살고 싶은 서울프로파일



집단 A (살고 싶은 서울의 지표 만족도가 모두 낮은 집단, n=2,280)

집단 B (개인생활 만족도가 낮고, 환경 만족도와 서울거주욕구가 높은 집단, n=4,801)

## D. 연구결과



집단 C  
(살고 싶은 서울의 지표  
만족도가 평균인 집단,  
n=22,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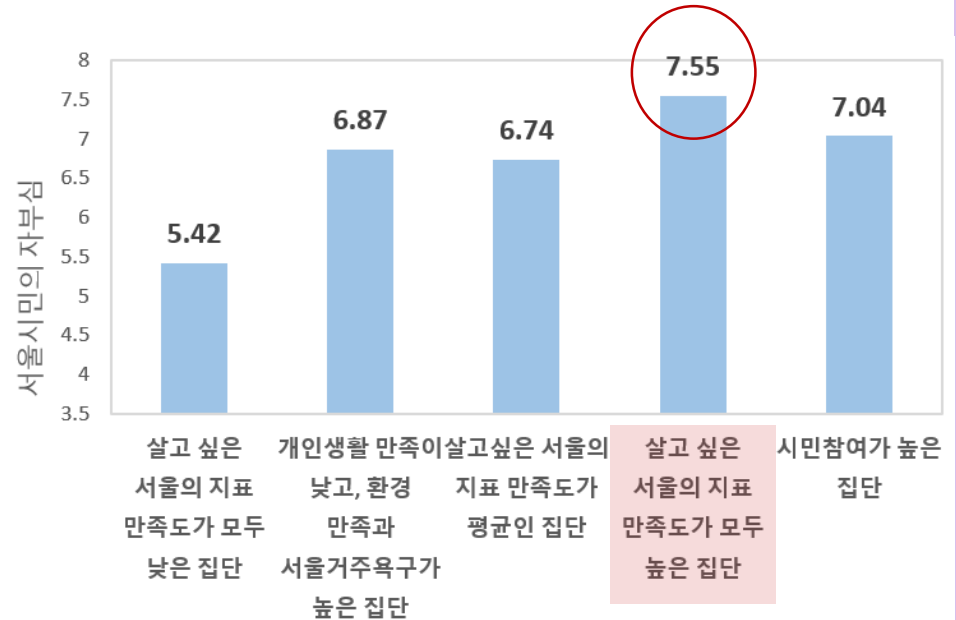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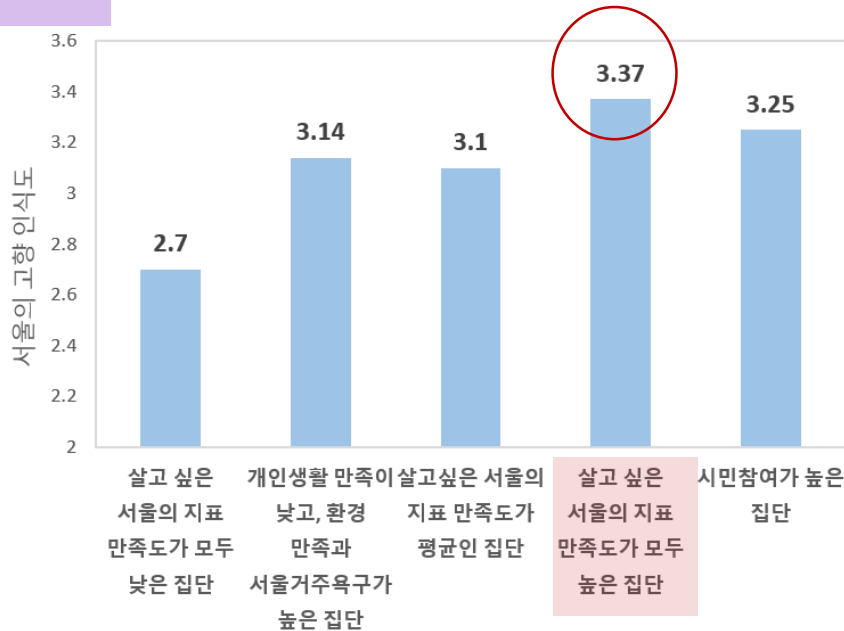
집단 D  
(살고 싶은 서울의 지  
표 만족도가 모두 높은  
집단, n=12,276)

집단 E  
(시민참여가 높은 집단,  
n=1,406)

## D. 연구결과

### 3. 살고 싶은 서울의 프로파일 집단별 서울 거주 특성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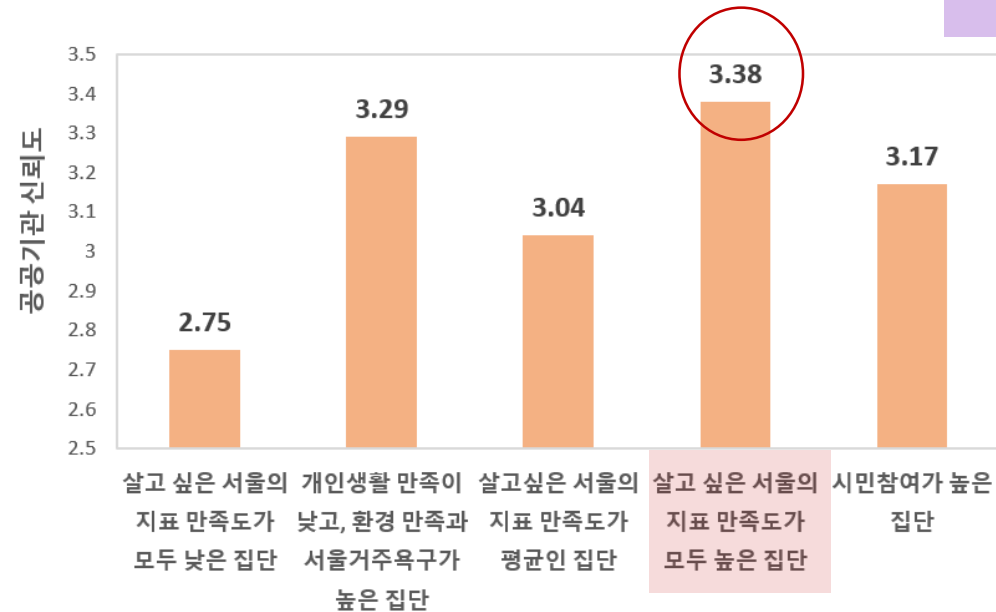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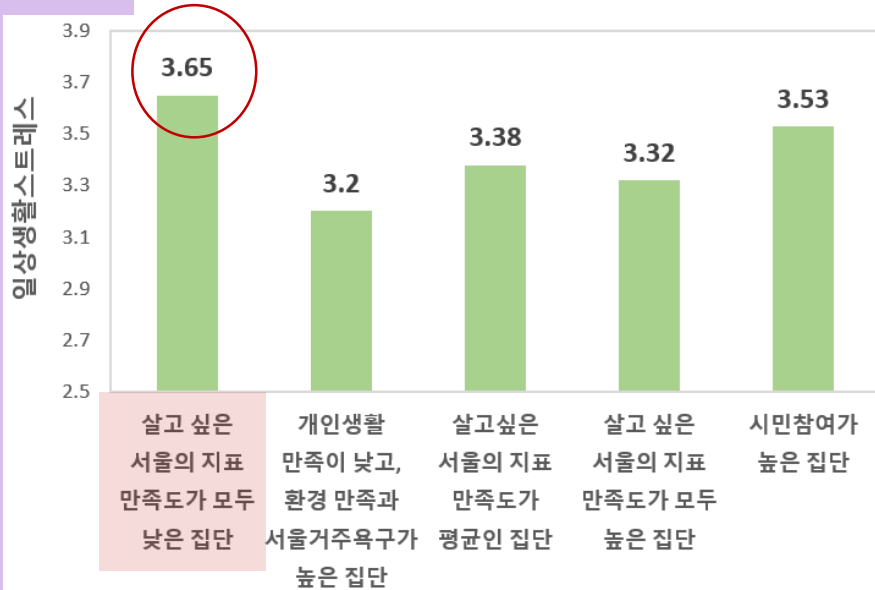
- 살고 싶은 서울 프로파일의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서울의 총 거주기간, 서울이 고향이라는 인식도, 서울시민의 자부심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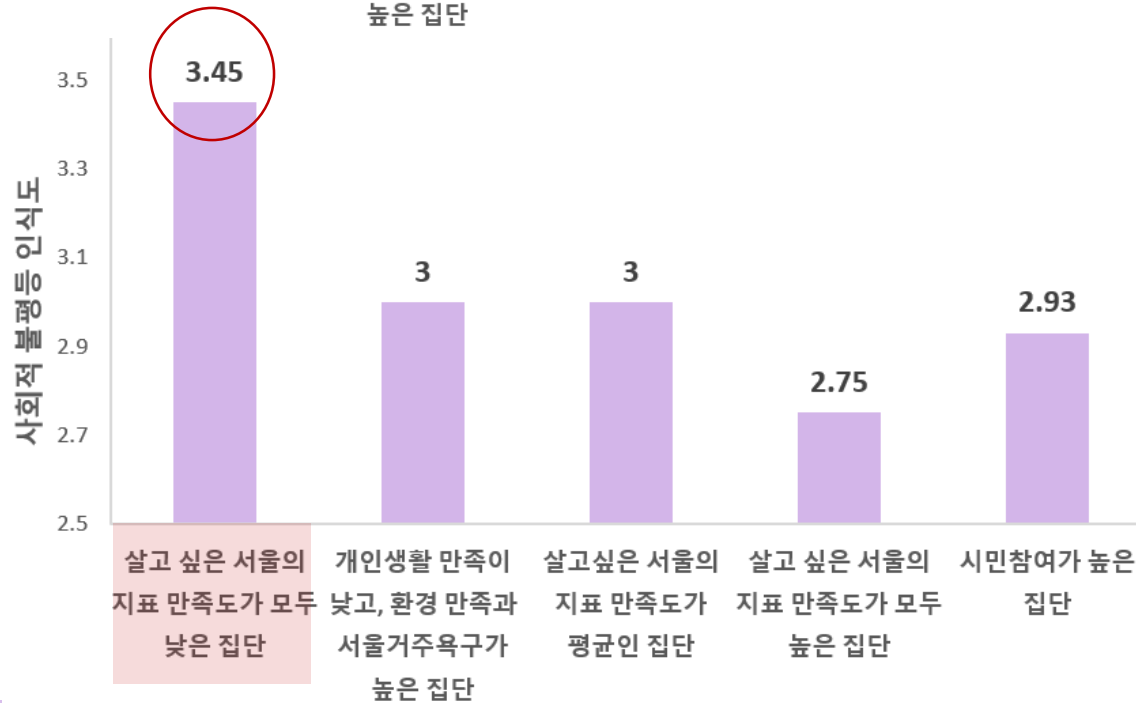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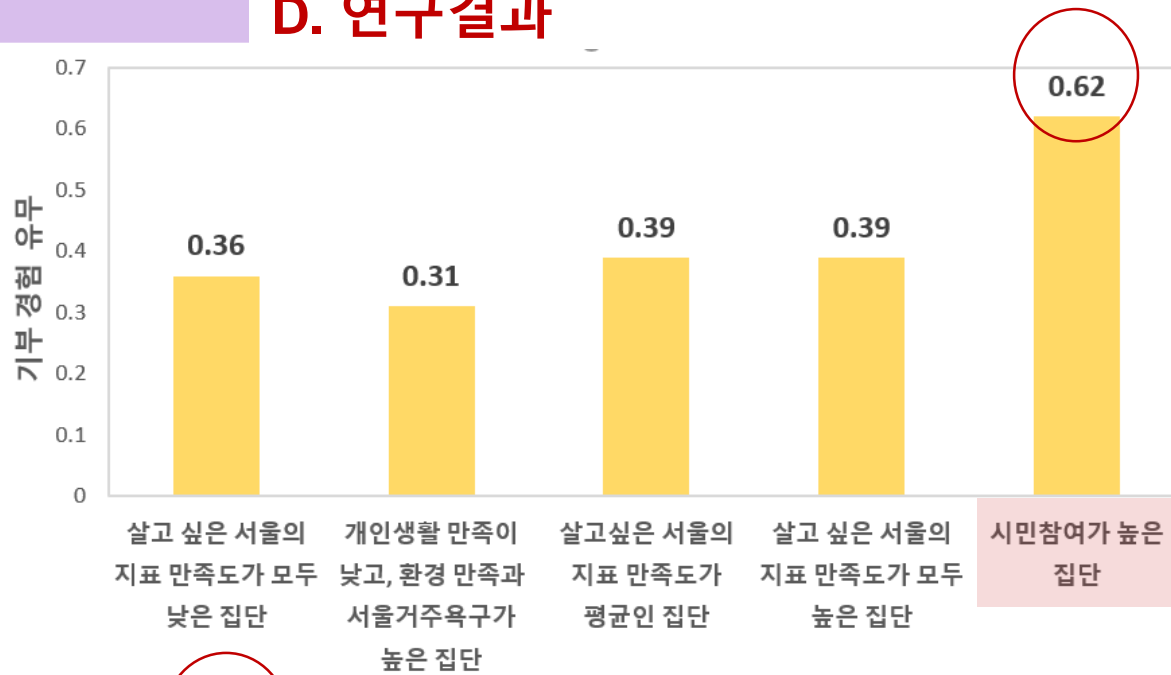
## D. 연구결과

### 4. 생활여건·지역사회 신뢰·나눔활동·약자에 대한 태도·사회적 불평등 인식의 차이

살고 싶은 서울의 프로파일에서 도출된 5가지 집단별 생활여건·지역사회 신뢰·나눔활동·약자에 대한 태도·사회적 불평등 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 D. 연구결과



### 첫째

서울의 24개 행정구역별로 불만족하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 지역구의 개선사항을 재점검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2개 지역구(마포구, 송파구)는 13가지 지표 모두 만족
- ✓ 1개 지역구(동대문구)는 모두 불만족
- ✓ 구별, 지역별 격차는 그 자체로 그 다음 단계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별 취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제안
  - 예를 들어, 강북구는 개인생활여건은 좋은데, 환경(안전, 주거, 녹지, 녹색교통, 교육, 문화) 만족도가 부적(-)으로 나타나 불만족함. 강북구 주민들의 환경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고, 녹지환경을 정비하거나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육과 문화환경 등의 인프라의 제고를 구상.

### 둘째

해당 지역구에 실시되어야 할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정책을 제안.

- ✓ 연구에서 제시한 살고 싶은 서울의 13가지 지표는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충분조건이고, 각 요건들이 살고 싶은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목표와 대상이 될 수 있음.
- ✓ 그러나 해당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안할 때, 자원이 한정적이므로 선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예를 들어, 광진구의 경우, 경제, 복지/의료와 서울거주욕구가 부적(-)으로 나타나 불만족함. 서울거주욕구는 단시간의 개선이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제와 복지/의료에 집중하여 일자리, 복지 및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투자를 계획·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 셋째

살고 싶은 서울프로파일의 집단별 정책적 제언

**: 집단 A (살고 싶은 서울의 지표 만족도가 모두 낮은 집단)**

- ✓ 전체 중 5.3%(n=2,280), 분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시키는 정책 필요.
- ✓ 특히 이 집단은 연령이 높고, 총 서울의 거주기간이 가장 길면서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사회적 불평등 인식이 가장 높았음.
- ✓ 스트레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정신건강 문제(우울, 자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예를 들어, 지역기반조직을 포함한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회적 안전망 서비스를 제공.
- ✓ 사회적 갈등은 오해와 편견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음.
- 지역기반조직 중심의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이웃과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 마련 필요

### 넷째

살고 싶은 서울프로파일의 집단별 정책적 제언

**: 집단 B (개인생활 만족이 낮고, 환경만족과 서울거주욕구가 높은 집단)**

- ✓ 전체 중 11.2%(n=4,801), 소득, SES와 나눔 행동이 가장 낮은 집단
- ✓ 환경적 요건과 서울거주욕구가 높은 편이지만, 개인생활(경제, 행복)의 불만족이 심화될수록 다른 충족된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집단 B가 집단 A로 전환될 가능성.
- ✓ 소득과 SES가 타집단에 비해서 많이 낮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예상.
- ✓ 이 집단은 경제, 건강과 행복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관건.
-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인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및 복지 정책 마련.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고용기회, 사회정책 등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다각적인 접근방법 모색필요

### 다섯째

#### 살고 싶은 서울프로파일의 집단별 정책적 제언 : 집단 E (시민참여가 높은 집단)

- ✓ 전체 중 3.3%(n=1,406), 이 집단의 역할이 중요, 성숙한 시민성이 요구됨
- ✓ '삶의 질, 복지' 차원에서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는 시민과의 합의와 지지 (김새미, 2018)이고,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 연대가 살기 좋은 도시의 핵심 (송은하, 2012)이 됨
- ✓ 그러나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면,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동기회의 차별화 야기. 시민됨이 시민성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집단이기주의가 되는 것을 경계 필요.
- ✓ 일반 시민들의 제도적 참여와 시민 행동의 증가가 요구되지만, 공적 윤리로서 공동체적 시민성이 발달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함.
- ✓ 시민참여 의식이 높은 수준이라면, 시민교육의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시민성 학습의 일상화'를 제안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